

# 일본 고대의 香道과 香文化\*

- 향의 문학적 기능을 중심으로 -

김 영\*\*·박 찬 익\*\*\*

(e-mail: youngkim@dhu.ac.kr · cipark@dhu.ac.kr)

---

## 目 次

---

1. 머리말
  2. 일본 고대의 '향도'과 '향문화'
  3. 곤자쿠모노가타리(今昔物語)에 나타난 '향'의 기능
  4. 맺음말
- 

## 1. 머리말

고래부터 동양에서 향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지구상에 향기가 나는 물질은 40만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동양의 향은 심신의 안정과 정신집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내면적 성찰을 돕는다고 알려져 왔다. 이러한 특유의 향은 인체의 기(氣)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sup>1)</sup>.

현대 과학에서도 향은 잠재의식과 창의적 사고를 관장하는 우뇌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향을 흡입할 때 우뇌의 알파 파장이 활성화된다는 실험결과가 있는데 이는 과거 불교의 고승들이 참선할 때 향을 즐겨 피웠던 사실과 무관치 않다.

---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대구한의대학교 부교수, 일본문화·일본문학

\*\*\* 대구한의대학교 부교수, 화학공학

1) 본초강목이나 동의보감, 명의별록 등의 동양 의서들은 향이 역행한 기를 바로잡아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나쁜 풍수로 인해 생긴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향이 산업으로 발전한 것은 서구에서 비롯되었는데 17세기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부터이다. 프랑스 궁정에서도 많은 향수가 애용되었는데, 주로 오렌지꽃(네롤리)과 히아신스가 애용되었다고 한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화학합성 향료가 개발되면서 향수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졌다. 이전까지는 천연향료만을 사용해왔던 탓으로 향료와 향수는 귀족계급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나 합성원료의 등장으로 향료·향수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자크 켈랭에 의해 대중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 빌르 블루, 미즈코, 보르드뉴 등은 그의 대표적 향수로 알려져 있다. 그 뒤에도 향수는 유명 디자이너들에 의해 패션 산업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근대 향수산업의 발달을 크게 진전시키는 계기로 받아들여진다<sup>2)</sup>.

이와 같이 향과 향수의 역사는 서양 문명의 관점에서 쓰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문명의 화려함이 프랑스와 독일의 유럽문명으로 진화하면서 향과 향수는 서구 문명에서 비롯됐고 샤넬, 랑뱅, 이브생로랑 등의 유명 향수 브랜드는 향의 역사 및 산업의 발달은 향이 서구에서 시작됐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물론 서양의 경우, 향유를 추출하는 기술과 합성향료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기술들을 체계적인 과학으로 발전시켜, 예술과 함께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정착시켜 왔다. 그에 비해 동양은 향의 애용이 서구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자연 그대로의 냄새를 중히 여겨 정신적 내면의 세계에 국한시킴으로써, 산업화의 과정을 밟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향도(香道)<sup>3)</sup>가 가장 정교하게 발전해 전승되어 왔고 향도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향도와 향료에 관한 각종 서적들이 저술되어 왔고 향도 유과도 약 100여개에 이른다. 중국에서 불교와 함께 전래된 향 문화가 일본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향도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향도는 현재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에서는 거의 실종된 상태이며 현재 향도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일본에서 향도를 배워가는 실정이다.

일본의 향도가 최고조로 발달한 에도시대 문화는 고대 궁정유산의 부산물이

2) 송인갑(2000) 『냄새, 우리의 향을 찾아서』 청어와 뽀뽀, pp.140-144

3) 향도(香道)란 호흡으로 향기를 흡입함으로써 몸을 보양하여 건강하게 하고 기를 모아 마음을 안정시키는 도락(道樂)이다. 향도는 감각에서 출발하는 인간의 인식, 지각형성 과정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향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후각은 인간의 감각기관 중 가장 민감하며 가장 먼저 발달해 가장 늦게까지 기능을 유지한다.

며 일본의 에도시대 시민계급은 고대 귀족들의 궁정 유산을 모범적인 상류사회의 표본으로 삼았다. 따라서 일본의 향도는 헤이안시대 부터 시작된 궁중 발달 과정의 부산물이며, 일본의 고대 귀족들의 궁중 문화는 이후 독특한 일본문화로 정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헤이안시대의 향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일본 향의 원천을 규명하는 작업과 일맥상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향의 발원인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일본 고대인들의 향과 향문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女性)과 향(香)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 당대 귀족들과 서민들의 실상이 여실히 반영된 곧자쿠모노가타리(今昔物語)를 중심으로 문학에 나타난 향의 묘사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일본 고대의 향도와 향문화

일본 헤이안시대 중요한 회화자료인 에마키(繪卷)에는 당시의 여성들은 화려한 의상을 휘감고 얼굴과 손끝, 머리칼 부분만을 살짝 노출시킨 모습으로 등장한다. 또한 깊은 휘장 속에 자취를 감추거나 부채나 소매로 자신의 얼굴과 신체를 가리기도 한다. 이것은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의 신체에 가해진 남성 중심주의적 표현이며 성차별화된 위계질서가 여성의 신체를 속박하고 구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문학과 신체론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프랑스의 철학·문화인류학·사회학 분야에서 부상했는데, ‘행동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며 사유 역시 정신적인 것만은 아니다. 인식의 궁극적 완성은 몸의 지각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가와조에 씨(河添房江)는 신체론과 함께 신체론에서 한 걸음 확장된 ‘상징으로서의 신체’에 주목한다<sup>5)</sup>.

고대문학에서 신체에 관련된 논술의 축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신체론의 언설에서 의식적으로 파악하는 것로부터 무엇이 보일까. 신체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연장으로서 의상과 화장, 調度와 주거 공간, 회화와 책 등 다양한 문화현상, 그 역사성, 시각·청각·후각·촉각·미각이라는 오감에 관련된

4) 김영(2013) 「일본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얼굴> 고찰-헤이안시대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84호, pp.113-130

5) 河添房江(1994) 「最近の物語研究から-王權論から身体論へ」 『日本文學』/河添(1998) 『性と文化の源氏物語』 筑摩書房, p.129

현상 등 <상징으로서의 신체>야말로 바로 향후 신체론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인간의 오감 중에서도 후각에 주목하여 당시 고대 여성과 향(香), ‘후각의 에로티시즘’이라는 시각에서 일본 왕조미(王朝美)의 한 전형(典型)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헤이안 사회에서 생산되고 고착화된 후각의 미의식과 당시 정형화된 미의식에서 비롯된 향(香)의 규범성,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 후각미(嗅覺美)에서 당대 향문화의 실상을 모색하고자 한다.

향과 성(sex)과의 관계에 주목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래 여성의 후각기능은 남성보다 우수하며 여성들의 코는 체취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고 어떤 냄새에 대한 선호도 또한 대단히 명확하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냄새에 이름을 잘 붙이는데 이는 남성보다 언어감각이 더 잘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연구진들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모든 후각기능 면에서 우수하다고 밝혀냈는데 이는 문화권의 차이에 관계없는 전반적인 경향이었다<sup>6)</sup>.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사춘기 이후 증가하는 에스트로젠이라는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 여성의 후각은 에스트로젠 농도가 높은 배란기에 가장 예민해진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무라사키시키후(紫式部)와 세쇼나곤(清少納言)이라는 여성작가들의 작품인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와 마쿠라노소시(枕草子)에는 헤이안시대 향문화의 일상을 반영한 구절들이 다수 등장한다.

먼저, 겐지모노가타리의 우메가에(梅枝)권에는 당시 귀족들이 향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향을 직접 제조하였음을 나타내는 일화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향 제조에 직접 관여하는 겐지와 4명의 여성들의 향 제조 과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며 완성된 향을 넣은 향 항아리(香壺)와 향함(香箱)에 이르기까지,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재료와 세밀한 디자인(意匠)까지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겐지와 아카시노우에(明石の上) 사이에서 태어난 아카시 공주(明石の姫君)의 11살 성인식(裳着)을 맞이하여 로쿠조인(六條院)에 거처하는 여성들에게 ‘향 경합(薰物合せ)’을 제안하면서 시작되는 이 일화는, 이후 동궁의 왕비로 입궁하는 여성에게 최고로 어울리는 향을 선물하는 왕조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무라사키시키후는 누가 어떤 향을 제조했는가에 의해 작중인물의 캐릭터와 작품에 있어서의 등장인물들의 신분과 위치, 나아가 인물들의 교양과 지성을 조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여기엔 여성작가인 무라사키시키후의 향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높은 품격, 향에 대한 치밀한 묘사가 돋보이는데, 이것은 그녀의 절대

6) Doty, R.L., S. Applebaum, H. Zusho, and R.G. Settle. "Sex Differences in Order Identification Ability: A Cross-Cultural Analysis." *Neuropsychologia* 23(1985): 667-672(피트 브론(2000) 『냄새 그 은밀한 유혹』 이인철옮김, 까치글방, p.110 재인용

심미안을 함축할 뿐만 아니라, 여성이었기에 섬세한 필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도 탁월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와카무라사키(若紫) 권에는 3가지 종류의 향이 등장한다.

そらだきもの心にくかわり出で、名香の香など匂ひ満ちたるに、君の御追風いとことなれば、内の人々も心づかひすべかめり<sup>7)</sup>。

위의 짧은 한 문장 안에는 다키모노(たきもの)와 묘고(名香), 오이카제(追風)가 모두 존재한다. 다키모노는 조합한 향을 연소시켜 실내 공기를 바꾸는 것이고 묘고는 불전에 피우는 향을, 오이카제는 의복에 훈향한 향이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향내를 풍기는 것이다. 고대 헤이안 귀족들이 오히려 현대인들보다 후각에 예민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향을 통해 향락의 극치를 구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쿠라노소시에도 여성 작가의 날카로운 후각 감각이 잘 나타난다.

心ときめきするもの(中略)よき薰物たきて一人臥したる。唐鏡のすこし暗き、見たる。よき男の、車とどめて、案内し問はせたる。頭洗ひ化粧じて、香ばしうしみたる衣など着たる(『枕草子』27段<sup>8)</sup>)

세쇼나곤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 중에 한 가지는 머리를 감고 화장을 아름답게 하고 세련된 향이 잘 스민 옷을 입고 있는 것(頭洗ひ化粧じて、香ばしうしみたる衣など着たる)이라 묘사한다. 훈향한 의복 외에도 멋진 향을 피우고 혼자 누워(よき薰物たきて一人臥したる)방안에 그 은은한 향이 퍼지는 것을 후각으로 느끼는 것 또한 당시 헤이안 귀족들의 도락(道樂)적인 일상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당시 향은 일부 특권계층에 국한된, 고위 귀족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거의 수입에 의존했던 향목은 경제력 있는 천황과 귀족들만이 향유할 수 있었고 그들은 최고의 교양과 지성의 표현으로 향을 일상생활에 도입했다.

특히 훈향하기 위해 헤이안시대 일본인들은 후세고(伏籠)를 사용했다. 히토리(火取)라고 불리는 일종의 향로에 향을 피우고 큰 대나무 소쿠리 같은 통을 향로에 뒤집어씌운 모양이다. 이 위에 의복을 펼쳐 향을 스며들게 한다. 이처럼

7) 阿部秋生外 (1996)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源氏物語1』 p.211(練香를 훈향한 향기가 어디선지도 모르게 실내에 가득 차고 불전에 봉헌하는 향기가 가득 차 있는데다가 겐지의 의복에 뻗 향기도 각별하므로 안에 있던 여인들도 무언인가하고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8) 松尾聡 (1997)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枕草子』小学館、p. 69

림 의복에 향을 스미게 한 것은 여성뿐만 아니었으며 남성귀족들도 단정한 옷차림을 위한 필수 교양의 한 가지로 훈의향을 사용했다. 헤이안 귀족의 남녀를 불문하고 의류에 자신의 개성이 담긴 향기를 스며들게 하는 훈의향의 관습은 꽤 오랫동안 헤이안 사회에서 지속되었던 것 같다.

겐지모노가타리의 마키바시라(眞木柱)권에는 훈향의 관습이 단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御火取召して、いよいよたきしめさせてまつりたまふ。(中略)なほ装束したまひて、小さき火取とり寄せて、袖に引き入れてしめゐたまへり。なつかしきほどに萎えたる御装束に、容貌も、かの並びなき御光にこそ圧さるれど、いとあざやかに男々しきましてただ人と見えず、心恥づかしげなり<sup>9)</sup>。

여기에는 본처인 기타노가타(北の方)가 세련되지 못한 구로히게 다이쇼(髭黒大將)인 남편의 의복에 훈향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훈향한 의복을 입은 구로히게 다이쇼는 남자다운 풍채로 변모하여 젊은 애인 다마가즈라(玉鬘)를 만나러 간다. 하지만 출발을 서두르는 모습에 슬피하며 울분을 참던 기타노가타(北の方)는 끝내 참지 못하고 후세고 밑에 있던 향료를 남편의 등에 던져 버린다는 내용이다.

헤이안 귀족들은 항상 신변 가까이 향과 훈향 기구를 두고 능숙하게 고귀한 향을 사용했던 것 같다. 당시 훈향은 남자의 필수교양이었으며 주로 남자의 의복을 훈향하는 것은 집안 본처 여성의 몫이었다. 애인의 거처에 드나들며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면서도 고통을 인내하며 남편의 의복에 향을 입히는 모습이 현대 여성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향을 제조하고 의복에 향을 입히고 향을 다루는데 익숙했었으며 고대 여성들은 남편의 훈향과 향낭 소지 등 기본적인 교양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고대에는 반훈향(反魂香)이라 하여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영력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향이 존재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향의 종교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데, 19세기 서양에서 후각혁명이 일어나 향이 감정과 관능의 영역으로 이동하기 이전까지의 고대사회에서 향과 향료는 종교와 의학의 영역에서 주로 거론되었다. 향료는 문화인류학적으로 유혹, 치료, 사냥, 영적 존재와의 교감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문화 전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중국의 『白氏文集』에 전해지는 일화에서는 한 무제가 사랑하는 이부인(李夫

9) 阿部秋生外 (1996)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3』 p.364

人)이 먼저 죽고 난 후 도저히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 반혼향(反魂香)을 구해서 향을 피웠더니 현실처럼 죽은 이부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겐지모노가타리의 아게마키(總角)권에는 이러한 중국 고대의 반혼향이 나타난다.

人の国にありけむ香の煙ぞ、いと、得まほしく思さるる

다른 나라에 있다고 전해지는 반혼향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꿈에서라도 만나길 바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문학적 에피소드의 과학적 근거는 이미 현대과학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즉, 기억보조수단으로서의 향의 역할에 주목한 것인데, 과학적으로 이러한 기전을 상태 의존성 복구(state dependent retrieval)라고 한다. 어떤 생리학적, 정신적 상태나 장소에서 배웠던 것들은 나중에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완벽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 여기서 향은 기억의 보조수단이 될 수 있고, 어떤 기분상태와 수반된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전으로 한 여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두 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그때 그 여자는 어떤 향수를 사용했는데, 그 향수를 다시 사용하자 밀폐공포증을 겪었고 그 여자는 다시는 그 향수를 사지 않았다<sup>10)</sup>고 한다.

이와 같이 향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향의 기능은 마쿠라노소시에도 잘 나타난다.

よくたきしめたる薫物の、昨日、一昨日、今日などは忘れたるに、引きあげたるに、煙の残りたるは、ただ今の香よりもめでたし。(215段「よくたきしめたる薫物の」<sup>11)</sup>)

향이 잘 배인 옷을 며칠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며칠이 지난 후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옷에 남아있던 여향(餘香)이 오히려 풍류가 있다고 찬미한다. 잊고 있었던 희미한 향기로부터 과거가 일순 회상, 돌이켜지는 데, 그러한 향기가 지금 막 피운 향보다 정취가 있다는 것이다. 향의 기억장치로서의 기능이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향과 성(性)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인간에게는 특이한 성페로몬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역사상 1960년대 성혁명 시기에는 후각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인간의 페로몬은 안드로스텐(androstenes)과 코풀린(copulines)이라는 남성과 여성의 페로몬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남자의 겨드랑이에서 나는 안드로스테놀은 이러한 성페로몬의 일종이다. 이러한 사람의 겨드

10) Tisserand,R(1988). *Aromatheapy*. London: Penguin(피트 브론(2000) 『냄새 그 은밀한 유혹』 이인철옮김, 까치글방, p.137 재인용)

11) 주8)과 동일. 松尾聰外, p.351

랑이 냄새, 체취가 가지는 영향에 관한 일화는 다수 존재한다. 젊은 남자가 춤을 추며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손수건을 건네주었는데 그 냄새를 맡은 여자가 성적인 충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 등이다<sup>12)</sup>. 남성 페로몬은 특히 겨드랑이 땀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안드로스텐이라는 물질들은 여자들의 기분을 어느 정도 “나긋나긋하게”해준다고 한다<sup>13)</sup>.

마쿠라노소시에도 남성의 페로몬을 연상시키는 구절이 있다.

七月ばかりに、風いたう吹きて、雨などさわがしき日、おほかたいと涼しければ、扇もうち忘れたるに、汗の香すこしかかへたる綿衣の薄きを、いとよく引き着て、昼寝したるこそをかしけれ。 (42段「七月ばかりに」<sup>14)</sup>)

세쇼나곤은 시원한 어느 여름날, 땀 냄새가 약간 남은 옷에서 나는 향취가 풍류 있다고 하면서 불쾌한 냄새가 아닌 좋은 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대 헤이안사회를 살았던 세쇼나곤은 자신의 성적 느낌을 솔직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 3. 곧자쿠모노가타리(今昔物語)에 나타난 향의 기능

그렇다면 헤이안시대 귀족들과 서민들의 일상이 담담하게 그려진 곧자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향의 구체적 묘사를 통해, 일본 고대의 ‘향’과 ‘여성’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곧자쿠모노가타리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향은 ‘고귀한 신분의 상징’으로써 이다. 용례①②③은 이러한 예인데, 특히 여성의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데 향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1) 고귀한 신분의 상징, 향

① 「聖人、后を犯して国王の咎を蒙りて天狗と成れる語」(卷10、第34)<sup>15)</sup>

夜少シ深更る程ニ、世ニ不似ズ香シキ香、一山かおり満タリ。「此レハ何事ニカ有ラム」と思フ程ニ、柴ノ戸ヲ押シ開テ入ル。天女ト云フナル者ノ如クナル者ヲ、宮迦羅負テ指置テ出給ヒヌ。(中略) 香シキ香、可譬キ方無シ。震旦ノ后ハ、必ズ其ノ匂三十六町ニ香シ。況ヤ、狭キ一ノ庵ノ内、可思遣シ。(中略) 我ニモ非テ恐シト思ヒタル気色、実ニ哀レナリ。具無ク嚴シ。

12) 피트 브론(2000) 『냄새 그 은밀한 유혹』 이인철옮김, 까치글방, pp.165-168

13) 주12)와 동일. 피트 브론, pp.247-248

14) 주8)과 동일. 松尾聰外, p.100

15) 小峯和明校注(1999) 『今昔物語集二』 新日本古典文學体系、岩波書店、pp.365-370

위의 장면은 震旦(중국)의 이야기로 성인이 국왕의 비를 보고 싶다고 하여 그 날 밤 만난 여성에 대한 묘사인데, ‘세상에 둘도 없는 향기로운 내음이 온 산에 가득찬다’(「世ニ不似ズ香シキ香、一山かおり満タリ」)라고 표현한다. 또한 그 향기는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정취’(「香シキ香、可譬キ方無シ」)가 있으며 중국 왕비의 향은 ‘36정까지 퍼진다’(「震旦ノ后ハ、必ズ其ノ匂三十六町ニ香シ」)고 기록한다.

여기에는 멋지고 매력적인 여성은 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향기는 둘도 없는 정취가 있으며 고귀한 신분의 여성일수록 그 향기가 멀리까지 퍼진다고 하는 관념이 잘 반영되어 있다. 중국 왕비는 그 신분과 교양에 어울리는 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멀리서도 그 향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신비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 (2)문학적 풍류의 상징, 향

### ② 「村上天皇御子の太齋院出家の語」 (卷19、第17)<sup>16)</sup>

「御前へノ御簾ノ少シ打チ動ニ付テ、薰ノ香艶ズ馥ク氷ヤカニ匂ヒ出タルヲ聞ケニ、御隔子ハ被下タラムニ、此ク薰ノ匂ノ花ヤカニ聞ユレバ、「何ナルニカ有ラム」ト思テ見遣バ、風に被吹レテ、御几帳ノ裾少シ見ユ。早ウ、御隔子モ不被下テ有ケル也ケリ。

이 일화는 고이치조천황(後一條天皇, 1030년) 무렵, 덴조비토(殿上人)가 우린인(雲林院)에 염불(不斷念仏)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이인(齋院)의 동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요즘 사이인(齋院) 안을 제대로 들여다 본 적이 없으니 이 기회에 몰래 보고 가자’며 안으로 들어가는데서 발단한다. 이때 살짝 바람이 불면서 스타레(御簾, 발)가 약간 움직임에 따라 훈향의 향이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향기롭고 청량하게 퍼져 왔다. 격자문은 내려 있었지만 훈향의 향이 이렇게도 화려하게 퍼져 와서 ‘어떤 연유일까’생각하며 그 쪽을 살펴보니 바람에 흔들린 스타레 사이로 휘장의 끝이 살짝 보였다는 내용이다.

만년의 다이사이인센시(太齋院選子)<sup>17)</sup>의 멋진 모습을 표현하는데 「薰く香」「薰の匂」이 떠도는 풍류를 묘사하고 있다. 무묘조시(無名草子)의 작자는 당대 여성에 대한 비평 중에서도 센시에 대해선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昔のやうの宮はらの御有様、あまた承はる中に、太齋院こそめでたくおはしましけんとおぼえさせ給へ」(『無名草子』)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당대 문학

16) 馬淵和夫校注(2000) 『今昔物語集2』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小學館、pp.509-514、이하 곤자쿠모노가타리 본문 인용은 신편일본고전문학전집에 의하며, 간략히 新全集라 칭한다.

17) 센시는 헤이안시대 대표적인 다이사이인 문학살롱(太齋院文學サロン)을 형성해 와카의 향수, 모노가타리 창작과 수용을 리드했던 인물이며 무라카미천황(村上天皇)의 10번째 공주로 태어나 엔유(円融), 가잔(花山), 이치조(一條), 산조(三條), 고이조(後一條) 5대에 걸쳐 사이인 직분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살롱을 리드하며 우타아와세(歌合)를 개최하고 와카를 향유하며 풍류 넘치는 문학활동을 선도했던 다이사이인에겐 고귀한 여성의 아름다움, 그것은 용모, 외모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훈향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여기서 향은 신분의 고귀함뿐만 아니라 다이사이인의 문학적 재기와 풍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③의 용례에서도 문학적 풍류를 상징하는데 향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③ 「延喜御屏風、伊勢御息所、和歌を読みし語」 (卷24、第31)<sup>18)</sup>

寄テ茵ノソバノの方ニ居タレバ、内ヨリ空薫ノ香水ヤヤカニ馥シク、ホノボノ匂ヒ出ツ。清氣ナル女房ノ袖口共透タリ。

다이고천황(醍醐天皇)의 명령으로 후지와라고레히라(藤原伊衡)가 이세미야스도코로(伊勢御息所)의 거처를 방문했을 때의 장면이다. 고레히라가 다가가 깔개(방석) 옆에 앉아 있자니 스다레 안에서 훈향의 향이 향기롭게 은은하게 퍼져왔다. 아름다운 뇨보의 소매 끝이 스다레에 비치고 있다. 즉 「内ヨリ空薫ノ香水ヤヤカニ馥シク、ホノボノ匂ヒ出ツ」(안에서 훈향의 향이 청량하고 향기롭게 은은하게 퍼진다)고 기록한다.

이세(伊勢)는 우다천황(宇多天皇)의 중궁온시(中宮溫子)의 뇨보(女房)로 출궁해 천황의 총애를 받아 황자를 출산한 여성으로 정열적인 사랑가(戀歌)를 많이 불러 고킨슈(古今和歌集) 이하 칙찬와카집에 176수가 입수되어 여류가인으로서 가장 많은 노래가 채록된 가인(歌人)이다. 우다천황의 명(命)으로 장혼가(長恨歌)등의 병풍가(屏風歌)를 영진(詠進)하는 등 전문가인으로 병풍가와 우타아와세(歌合)에 많은 노래를 싣고 있다<sup>19)</sup>.

이렇게 정열적인 여류가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이세가 와카를 읊을 때 빼놓을 수 없었던 것 중의 한 가지가 향(香)이었다. 그녀의 거처에서 와카 읊는 소리, 즉 청각적 효과와 함께 은은하게 퍼지는 향의 후각적 효과를 놓칠 리가 없을 것이다. 품격 있는 와카에 어울리는 청량하고 은은한 향이 와카의 묘미와 수준을 한층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시각과 청각에만 집중하여 후각적 기능에 대해 소홀한 경향이 적지 않았는데, 고대 일본인들은 청각적 감각뿐만 아니라 후각적 감각에도 민감하여 문학에서도 후각-향기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新全集3、pp.321-327

19) 이세슈(『伊勢集』)라는 개인가집이 있으며 앞부분엔 긴 고토바가키(詞書)를 동반하고 있어 그 부분은 특히 이세일기(伊勢日記)라고도 하고, 이후 여류일기문학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②의 용례는 문학살롱을 리드하며 여류 문학집단을 형성했던 최고위 여성 다이사이인 센시에 대한 묘사에 향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향은 고귀한 신분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문학적 재기와 풍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③의 용례 또한 이와 동일하게 당대 정열적 사랑가를 읊었던 전문가인이며 용모 또한 절세가인이었던 이세에게 향이 사용되는데, 와카의 품격과 교양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일화가 문학적 풍류와 교양을 표현하는데 향과 향료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다음 예는 여성으로의 여성미과 성적(性的) 매력을 발산하는데 사용된 섹슈얼리티로서의 향이다.

### (3) 섹슈얼리티(sexuality)로서의 향

#### ④ 「平定文、本院侍從に懸想せし語」 (卷30、第120)

虚薰ノ香局ニ滿タリ。(中略)香ノ艶ズ馥シケレバ、木ノ端ノ有ルヲ取テ、中ヲ突指シテ、鼻ニ宛テ聞ゲバ艶ズ馥シキ黒方ノ香ニテ有リ。

혼잉지쥬(本院侍從)라는 여성의 츠보네(局)에 대한 묘사로 ‘향기가 여인의 거처에 가득차다(「虚薰の香局に滿ちたり」)’라고 기록하는데, 남성인 다이라노사다후미(平定文)의 마음을 뒤흔드는 향기라는 풍류가 곁들여진다. 혼잉지쥬는 무라카미천황(村上天皇)의 중궁, 안시(安子)와 왕녀 기시(徽子), 사이구노고(齋宮女御) 등을 섬긴 전문가이다. 섭정(攝政) 후지와라노 고레타다(藤原伊尹)와 태정대신(太政大臣) 후지와라노 가네미치(藤原兼通兼通)형제, 가인인 후지와라노 아사타다(藤原朝忠)등과 연애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랑노래(戀歌)가 많이 전해지는 인물이다.

이러한 혼잉지쥬의 대변이 들어있는 변기를 빼앗아 냄새를 맡는 장면에서는 ‘말할 수 없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그 향을 맡아 보니 향기로운 구로보(黒方)의 내음이 났다’고 표현한다. 변에서 향 내음이 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더욱 더 여인에 대한 애뜻한 사랑이 깊어졌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여인의 향기는 남자의 마음을 뒤흔들어 평정심을 잃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이라노사다후미(平定文)는 여성의 용모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 여인이 갖고 있던 향기에 도취해 여인의 매력에 더욱 더 이끌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여기서 이름을 밝히고 있는 구로보(黒方)는 당대 최고의 향으로 꼽히는데 군주류이쇼(『薰集類抄』 헤이안말기 대표적인 향 레시피 모음집)에서 구로보의 제조법은 「沈八兩二分、麝香一分三朱、甲香三兩二分、甘松一分、白檀

二分三朱、丁子二兩三分、麝香二分、薰陸一分」라고 있고 또 다른 설은 「沈·丁子·甲香·甘松を合せたもの一種と、それらに熟鬱金をあわせたもの」라고 2가지 기법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구로보(黒方)의 제조 비법은 남자에게는 전수하지 않았다(不伝男子)고 한다.

당시 고대 일본의 향 전수는 비전(秘傳)으로 비밀리에 전수되었으며 훈향의 조제비법 또한 일부 정해진 사람들만 그 비법을 알고 있었다. 만드는 자에 따라 향의 깊이가 달랐으며 그에 의해 향의 품질이 정해지는 등 은밀하면서도 세밀한 향 제조작업을 연상시킨다.

구로보의 이러한 특성과 함께 위 일화에서 사용된 향은 여성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여성적 매력을 더하여 남성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色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훈물(薰物)의 향에 대한 묘사는 고귀한 여성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우아함을 표현하기 위해 훈물(薰物)의 향을 표현한 모습은 『今昔物語集』卷20、第10「陽成院の御代似、瀧口、黄金の使に行きて外術を習ひたる語」에도 잘 나타난다. 道範이라는 瀧口(구로도도코로에 소속해 궁중의 경비를 맡던 무사)가 여행 숙소에서 「虚薰にや有らむ、いと香ばしく匂はせた」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年はたち余りばかりの女」가 옆드려 있는 곳에 다가가자 「香のこうばしき事、当りの物にさへ匂たり」라고 묘사한다. 기모노에 향 내음을 배게 한 것이 여성의 여성다움을 부각시키는 역할, 여성미를 높이는 섹슈얼리티적 기능을 한다.

또 다른 예로 다음의 ⑤는 사향을 사용해 여성적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일화이다.

⑤ 「三好清行宰相の家渡の語」(卷27、第3121)

居長三尺許ノ女ノ、桧皮色ノ衣ヲ着タリ。髮ノ肩ニ懸リタル程、極ク氣高く清氣也。匂タル香艶ズ馥バシ。麝香ノ香ニ染返タリ。赤色ノ扇ヲ指隠タル上ヨリ出タル額ツキ、白ク清氣也。額ノ捻タル程、目尻長ヤカニ打引タルニ、尻目ニ見渡セタル、煩ハシク氣高し。

기품 있는 여성에 대한 묘사에 사향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나온다. 향기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향기롭고 온 몸이 사향내음에 싸여 있을 정도다. 붉은 색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 뒤로 보이는 이마는 하얗게 빛난다고 묘사하고 있다. 사향의 향기가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사향은 사향노루 수컷의 생식선의 분비물이다. 그 향은 분뇨이상으로 코를 자극해 두통을 일으

킬 정도지만 천분의 일 이상으로 희석하면 관능적인 방향을 내뿜는다. 사향은 향의 원료이외에도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샤넬 파이프나 에잇틴, 아르페주 등 재스민과 장미를 베이스로 한 고급향수의 원료가 된다<sup>22)</sup>.

사향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낸 향기인데 얼굴을 부채로 가린 상태에서 온 몸에서 퍼져 나오는 사향내음은 남성을 성적으로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 (4)신분과 늠음을 초월하는 향

한편, ①-⑤의 용례는 모두 고귀한 신분의 여성과 함께 쓰인 향인데, 다음 ⑥의 용례는 미천한 신분의 여성과 함께 사용된 향이다.

##### ⑥ 「碁うち寛蓮、其うちの女にあへる語」(卷24、第6<sup>23)</sup>)

賤小家ナレドモ故有テ住成シタリ。(中略) 其間簾ノ内ヨリ空薫ノ香馥ク匂出ヌ。

다이고천황 때(延喜の御時, 10세기 초)에 간렌(寛蓮)이라는 바둑의 명인이 가난하고 초라한(賤小家) 여성의 거처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스다레 안에서 훈향의 향이 향기롭게 번져 나온다고 기록한다. 이 이야기는 간렌(寛蓮)의 바둑수를 모두 이긴 여성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요괴인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결말이 나지만, 비천한 가문 출신의 여성이라도 여성의 풍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空薫の香」가 그려지고 있다. 비단 고귀한 신분의 여성뿐만 아니라, 비천한 신분의 여성이라도 신분에 맞지 않게 어떤 특별한 교양이나 매력을 가진 여성은 모두 향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고대 일본인들의 관념이 작용하고 있다.

한편, 다음 용례⑦에서는 중년 여성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데 후각적 기능의 향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⑦ 「女、医師の家に行きはれ物を治して逃げし語」(卷24、第8<sup>24)</sup>)

女房差向タルヲ見レバ、年三十許ナル女ノ、頭付ヨリ始テ、目、鼻、口、此ハツタナシと見ユル所無ク端正ナルが、髮極ク長シ、香馥シクテ、艶ヌ衣共ヲ着タリ。

22) 松榮堂監修 (2005) 『日本の香り』平凡社、コロナブックス、p.52, 이러한 사향은 호흡중추 및 심장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식각성제, 해독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1934년 스위스의 화학자 루지치카에 의해 무스콘(muscone)이라고 하는 방향성분이 발견되었는데 이 발견과 성 호르몬 연구에 의해 루지치카는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23) 新全集3、pp.253-258

24) 新全集3、pp.261-266

30세 정도의 여성의 외견을 묘사하고 있는데, 머리모양에서 눈과 코, 입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길고 향기로운 향 내음이 배인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 30세 정도라면 중년을 넘은 나이 든 여성이라는 선입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 머리칼과 향기 나는 의복은 이런 선입관을 불식시킬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

이처럼 용례⑥와 용례⑦은 모두 비천한 신분의 여성과 나이든 중년 여성의 묘사에 향이 함께 사용된 예이다. 그러한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향의 위력, 즉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효과보다는 ‘향’이라는 후각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고대인들은 멀리서도 맡을 수 있는 향기의 신비로움과 와카 읊는 소리와 함께 은은하게 퍼지는 청량한 향기를 느끼는데 예민했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보다 오히려 후각의 기능이 발달해 있었으며 여성의 아름다움을 평가할 때 지금처럼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효과보다는 코로 맡을 수 있는 후각적 효과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을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후각적 효과가 시각이나 청각효과보다 오래 지속되며 뇌리에 선명하게 기억된다는 점에서 증명될 수 있다.

다음 용례⑧은 인간으로 둔갑한 여우에게서 나는 향을 표현하고 있다.

⑧ 「狐、女の形に變じて播磨安高にあひし語」(卷27、第38<sup>25)</sup>)

安高近ク寄テ触這ニ、薰ノ香極ク聞ク。

후지와라미치나가(藤原道長)의 아버지인 가네이에(兼家)의 호위무관(御隨身)이었던 하리마야스타카(播磨安高)가 아직 젊었던 시절, 아름다운 여성으로 둔갑한 여우를 만나는데, 그 여성에게서 ‘훈물의 향이 그윽하게 나는데(薰物の香いみじく聞ゆ)’라고 표현한다.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후각적 ‘향기’는 아름다운 용모에서 주는 시각적 효과보다 강한 임팩트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곤자쿠모노가타리에서 ‘향’은 고귀한 신분의 여성, 그리고 문학적 재기와 풍류의 여성을 표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였으며 혹은 여성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섹슈얼리티적 분위기를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남성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여성의 성적 매력을 발산시키고 싶을 때 향의 후각적 기능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미천한 신분과 늙음의 벽을 허물고 높은 교양과 신비로움을 함축한 여성을 표현할 때 후각적 기능으로서의 향이 매개 장치로 작용했다.

25) 新全集4、pp.118-121

물론 훈향이 여성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섹슈얼리티를 상징하는 여성의 향에 비교하면 남성에 사용된 훈향은 신분의 고귀함을 표현하는데 적격이었다.

(5)남성의 고귀한 신분과 교양의 심벌, 향

⑨ 「大藏史生宗岡高助、娘を傳き語」 (卷31、第526)

父高助ハ、行ク時ニハ、極ジ氣ナル様シタリケレドモ、我が娘ノ方ニ行ク時ニハ、綾ノ襦ニ葡萄染ノ織物ノ指貫ヲ着テ紅ノ出シ柏ヲシテ、薰ヲ焼シメテ行ケリ。

평소에는 초라한 옷차림을 하는 야스오카다카스케(宗岡高助)지만 시집간 딸(娘)이 있는 곳에 갈 때, 아버지 다카스케는 격식있고 세련된 복장을 하는데 마지막에 향이 옷에 배게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훈향을 한 옷을 입는 것이 남성의 교양과 센스를 표현하는 수단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⑩ 「時平大臣、国経大納言の妻を取る語」 (卷22、第827)

其ノ中ニモ左ノ大臣ノ御形ヨリ始メ歌詠ヒ給ヘル有様、世ニ似ズめでたケレバ、万ノ人目ヲ付テ讚奉ルニ、此ノ大納言ノ北ノ方ハ、大臣ノ居給ヘルそばノ簾ヨリ近クテ見ルニ、大臣ノ御形チ、音、氣ハヒ、薰ノ香ヨリ始テ、世ニ似ズめでたキヲ見ルニ、我が身ノ宿世心疎ク思ユ。

20살의 젊은 다이나곤(大納言)의 부인(北の方)이 좌대신 후지와라도키히라(左大臣藤原時平)를 남편과 비교하는 장면이다. 자신의 남편 다카츠네(藤原國経)는 80살의 노인인데 비해, 좌대신 도키히라는 30살의 젊고 용모가 멋진 남성으로 등장한다. 좌대신은 용모를 비롯해 외가를 읊는 모습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이 넘친다. 사람들은 모두 시선을 빼앗기고 칭찬일색인데 다이나곤의 부인은 「大臣の御形ち・音氣はひ・薰物の香より始めて、世に似ずめでたきを見るに」(대신의 용모와 목소리, 분위기, 훈향의 향을 비롯해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표현한다. 여기에서도 훈향의 향이 훌륭한 것은 멋진 남성 귀족의 교양으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으로 나타난다.

⑪ 「藤原明衡朝臣、若き時、女のもとに行きし語」 (卷26、第428)

刀ヲ拔テ逆手ニ取テ、腹ノ上ト思シキ所ヲサグリ得テ、「突テム」ト思テ、肱ヲ持上タル

26) 新全集4、pp.489-495

27) 新全集3、pp.183-191

28) 新全集3、pp.468-472

程ニ、月影ノ屋ノ上ノ板間ヨリ漏タリケルニ、指貫ノクリノ、長ヤカデ物ニ懸タルニ、急ト見エケレバ、見付テ () 様、「我が妻ノ女ノ許ニ、此様ノ指貫着タル人ハ密男トテ不來者ヲ。若人違シタラムハ極メテ不便ナルベキ事カナ」ト思ケル程ニ、極クヨキ香ノ急ト聞エケレバ、「然バコソ」ト思テ、

후지와라아키히라(藤原明衡)를 정부(間男)로 착각해서 죽이려 했던 남자가 대단히 좋은 향기가 문득 느껴져서 (「極クヨキ香ノ急ト聞エケレバ、然バコソ」ト思テ、)역시 내 아내의 정부는 아니라고 확신하는 장면이다. 남성이 입고 있는 의복과 의복에서 배어 나오는 향기를 통해 고귀한 신분의 남성이라 생각해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와 같이 훈향은 신분이 높은 남성 귀족의 심벌처럼 사용되었던 것 같다.

위의 용례 ⑨⑩⑪은 모두 ‘남성’과 함께 사용된 향인데, 여성의 향기처럼 구체적인 향에 대한 묘사는 누락되어 있는 반면, 고귀한 신분과 높은 교양을 함축하는 ‘상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높은 신분과 풍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데 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4. 맺음말

본 논문은 인간의 감각 중에서도 ‘후각코드’에 주목하여 당시 고대 ‘여성’과 ‘향’이라는 시각에서 일본 왕조미(王朝美)의 한 전형(典型)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그동안 수많은 역사가·인류학자·사회학자들은 오랫동안 후각을 배제하고 시각과 청각에만 관심을 집중해 오면서 감각에 대한 편견을 가져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이 후각-향기에 집중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우리의 감각에 대한 편견을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대 일본 사회에서 생산되고 정형화된 후각-향기의 미의식과 당시 정형화된 미의식에서 비롯된 향(香)의 규범성,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 후각미(嗅覺美)에서 당대 향문화의 실상을 모색해 보았다.

곤자쿠모노가타리에서 향은 여성의 고귀한 신분과 문학적 풍류를 상징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중국 왕비는 그 신분과 교양에 어울리는 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멀리서도 그 향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신비함을 갖고 있었으며 다이사이인 센시는 문학살롱을 형성하며 여류가인들을 리드하던 인물답게 그녀의 문학적 재기와 풍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절세가인이었던 이세에게도 향이 사용되는데, 와카의 품격과 교양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혼잉지쥬의 구로보(黒方)의 내음은 여성미를 부각시켜 남성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섹슈얼리티적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여성의 향기는 남자의 마음을 뒤흔들어 평정심을 잃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이라노사다후미(平定文)는 여인을 용모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 여인이 갖고 있던 향기에 도취해 여인의 매력에 더욱 더 이끌리게 된다. 또한 현대에도 관능적인 방향을 내뿜는 사향은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고대에도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낸 향기로 등장한다. 얼굴을 부채로 가린 상태에서 온 몸에서 퍼져 나오는 사향내음은 남성을 성적으로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비천한 신분의 여성과 나이든 중년 여성의 묘사에 향이 함께 사용된 일화가 존재한다. 이것은 신분과 나이를 초월하는 향의 위력, 즉 일본인들이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효과보다는 ‘향’이라는 후각코드의 중요성을 인식한데서 비롯된다. 일본 고대인들은 멀리서도 맡을 수 있는 향기의 신비로움과 와카 읊는 소리와 함께 은은하게 퍼지는 청량한 향기를 느끼는데 예민했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보다 오히려 후각적 감각이 발달해 있었으며 여성의 아름다움을 평가할 때 지금처럼 시각이나 청각적 코드보다는 ‘후각코드’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을 것이다. 이처럼 후각코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본 고대사회에서 전개된 학문적·문화적 무의식의 공간을 사회적·지적 담론의 열린 공간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2013) 「일본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얼굴> 고찰-헤이안시대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84호, pp.113-130
- 송인갑(2000) 『냄새, 우리의 향을 찾아서』 청어와 뽀뽀, pp.140-144
- 피트 브론(2000) 『냄새 그 은밀한 유혹』 이인철옮김, 까치글방, p.110
- 阿部秋生外 (1996)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1』 p.211
- 河添房江(1994) 「最近の物語研究から-王権論から身体論へ」 「日本文学」
- \_\_\_\_\_ (1998) 『性と文化の源氏物語』 筑摩書房, p.129
- 小峯和明校注(1999) 『今昔物語集二』 新日本古典文学体系、岩波書店、pp.365-370
- 松尾聡 (1997)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枕草子』 小学館、p. 69
- 馬淵和夫校注(2000) 『今昔物語集2』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pp.509-514

## 要 旨

本論文では、人間の五感の中でも「嗅覚」に着目し、古代の「女性」と「香り」という視点から、日本の王朝美の典型を論じた。平安社会において生産され固定化された嗅覚の美意識と、当時の定型化された美意識から生まれた香りの規範性、そしてこれらの「規範的嗅覚美」から、当代の香り文化の実像を模索してみた。

『今昔物語』において香りは女性の高貴な身分や文学的風流を象徴するときに効果的に使われた。中国の王妃は、その身分と教養にふさわしい香りを持っていて、遠くからもその香りをかぐことができるほど神秘的であった。大寮院選子は文学サロンを形成し、女流歌人たちをリードした人物にふさわしい、彼女の文学的才気と風流をさらに引き立て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絶世の美人であった伊勢にも香りが使われるが、和歌の品格と教養を一層高める働きをしている。

そして本院侍従の黒方の香りは女性らしさを浮き彫りにし、男性の性的好奇心を刺激するセクシュアリティ的機能を持っていた。このような女性の香りは男性の心を揺さぶり、平常心を失わせる役割をはたす。平定文は女性の容姿を正しく把握する前に、その女性を持っている香りに酔って、女性の魅力にますます引き寄せられる。また、現代においても官能的な香りを漂わすムスクは香水の原料として使われ、古代にも女性のセクシュアリティを最も端的に表わした香りとして登場する。顔を扇で隠した状態で全身に広がりつつ漂うムスクの香りは男性を性的に刺激するのに充分であったろう。

一方、これとは異なり、低い身分の女性と年配の中年女性の描写にも香りが一緒に使われている。これは身分と年齢を超越した香りの威力、つまり目に見える視覚的效果よりも「香り」という嗅覚機能の重要性を認識したことから始まる。日本の古代人にとって、遠くからも嗅ぐことのできる香りは和歌を詠む音とともに、ほのかに広がる清涼な香りを感じるのに機微であったろう。それゆえ、現代人よりもむしろ嗅覚的感觉が発達しており、女性の美しさを評価する際に、現代のように目に見えるものではなく、鼻で感じる嗅覚的效果の重要性を高く評価し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

キーワード：香り、平安時代、今昔物語、女性、セクシュアリティ、嗅覚

투 고 일 : 2015. 2. 28  
심 사 일 : 2015. 3. 14  
게재확정일 : 2015. 4. 4